

어지럼증
고 하면 먼저
빈혈을 생각
하고 내과를
찾게 된다. 그
러나 혈액검
사를 해보면
빈혈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난다. 또한,
어지러운 증
상이 심해지
면 뇌에 이상
이 있거나 싶어
신경과와 또
는 신경과를
찾아 진료를
받기도 한다.

속이 울렁거려 내과에서 위
내시경을 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어지럼증의 원인 중
70% 이상은 이비인후과적인
원인에서 비롯된다.

귀 때문에 일어나는 어지럼
증에 대해 첨단 현대이비인후
과 최종선 원장의 도움말을 통
해 알아본다.

속이 울렁거려 내과에서 위
내시경을 해보기도 한다.

◇어지럼증의 원인 질환=귀에 의한
어지러움은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혼동
(갑작스런 자세 변화로 인한 어지러
움)·메니에르병·전정 신경염 등이 원
인이다.

뇌에 의한 어지러움은 뇌경색·뇌
출혈·뇌하혈발작 등이 있으며, 전신질
환에 의한 어지러움은 고혈압·저혈
압·빈혈·부정맥 등이 원인이다.

이외에 경추성 어지러움·심신성 어
지러움·안과적 질환·부인과적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메니에르병=귓속 달팽이관 이상
으로 생기는 증상이다. 10만 명당
16~17명 가량이 이 증상이 있으며,
대부분 40대~60대에 발생한다.

2~3시간마다 가랑 급성 발작성 어지러
움을 호소하고, 청력도 감소하는 것이
이 병의 증상이다.

또한, 큰 소리에 불쾌감을 나타내고,
구토 등이 이뤄질 경우에 이 증세를 의

큰소리에 불쾌감 느끼고 구토 땐 의심

소금 매일 섭취하고 스트레스 줄여야

심해 봐야 한다.

원인은 내 립프의 압력이 높아지면
서 나타난다. 내 립프 공간은 평행을
담당하는 전정기관과 척각을 담당하
는 달팽이관으로 통해 있어 청력과 평
행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급성 발작이 이뤄질 때는 평평한 바
닥에 몸을 눌하고 가능한 움직임 없이
눈을 뜯 채 고정된 사물을 바라보는 것
이 도움이 된다. 심한 어지러움이 진정
될 때까지 누워 있어야 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1일 소금량 1.8mg
이하의 낮은 양도 섭취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적당한 식
사와 운동이 필요하다. 이때 술·담배·
커피는 피해야 한다.

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경우가 있다.

초기증상이 심할 때는 증상을 완화
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며, 이 시기까지
되도록 많이 움직이게 해 전정기
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정 신경염=청력은 정상이지
만, 몸이 잘 움직이지 않고 천정이 빙
글빙글도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갑작스
럽게 한쪽 귀의 전정 신경 기능이 일부
또는 완전히 없어지는 전정 신경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증상으로는 최소한
하루 이상 구토를 지속적으로 하며, 식
은땀을 흘리기도 한다. 앓거나 일어서
면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넘어지고, 처음엔 어지러움이 심했다

대부분 특발성(特發性) 원인 불명의
병이 남에게서 전염되지 않고 저절로
생기는 성질)으로 발생되며, 전정 신
경염·장기간 침상 생활 등도 원인으
로 꼽히고 있다.

〈도움말=첨단 현대이비인후과 최종선 원장〉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흡연·음주 등 건강위험요인 많으면

진료비 더 많이 지출한다

흡연과 음주, 운동부족,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을 앓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진료비
를 더 많이 지출한다는 연구결과
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팀이
23일 공개한 '건강위험요인에 따른
진료비 지출 비교분석' 연구보

고서에서 나타났다.

이들은 2000년 이후 2002년과
2004년에 건강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를 중
에서 건강주와 단순휴양 등으
로 판정받은 사람을 제외한 191
만·194명을 대상으로 2006년 1년
간의 1인 당 연간평균 진료비를
성별에 따라 각각 분석했

다. 아울러 운동이 부족한 사람은
주 3~4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
(남자 47만8천969원)보다 1.07
배 많은 진료비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측은 "이 같은 고위험요
인이 많을 수록 연간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도의 진료비를 지출했다.

특히 하루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경우 남자는 1.23배 많은 48
만원을, 여자는 1.04배 많은 27만
원 정도를 흡연관련 질환 치료비
로 썼다. 또한 흡연기간이 길수록
진료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또 음주에 따른 질환의 진료비
차이를 음주행태에 따라 살펴보면,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비음
주군'(남자 53만원, 여자 46만원)
에 비해 1회 음주량이 '소주 1.5
병 이상'인 경우 남자와 여자 각
각 1.09배, 1.22배 많은 평균 58만
원과 56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지
출했다.

아울러 운동이 부족한 사람은
주 3~4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
(남자 47만8천969원)보다 1.07
배 많은 진료비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측은 "이 같은 고위험요
인이 많을 수록 연간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인공관절 수술 건수

지방 1위(서울 제외), 전국 7위 평가
에 이어 아시아 지역 최초로 밤복 인
공관절 시술 50례를 돌파한 것이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치료법이다.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
염·외상후성 관절염 등으로 인해 발

복 통증이 심하고 약물 요법 또는 물
리치료로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최
종적으로 이뤄진다.

인공관절의 수명은 최근 보고들을
종합해볼 때 수술 후 5년째 약 90%
이상의 환자들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
타났으며, 10년째에도 85~90%의
인공관절이 잘 기능하는 등 환자에
따라 15년~20년 정도의 수명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31사 장병들 헌혈 릴레이

여름방학과 휴가 시즌으로 헌혈량이 급감한 여름철을 맞아 육군 제31사단
(시민장 서길원)이 23일 오전 사단 사령부에서 200여 명의 부대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 릴레이' 행사를 가졌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의 협조로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 31사단은
다음달 31일까지 40일 동안 약 3천명의 장병이 120만cc를 헌혈할 예정이다.

발목 인공관절 시술 50회 돌파

전남대병원 아시아 최초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족부 다리관
절 클리닉은 지난 2005년 1월 발복 인
공관절을 처음 시술한 이래 올 7월 초
시술 50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공관절 수술 건수

효성공인중개사

전남대병원 아시아 최초

대지매매(교회, 원·투룸부지)

·북구 양산지구 대지 1,000평,

500평 3년도로점 펼당 135만

고교·원·투룸부지, 물류창고, 사무나, 투자적합

물류창고, 공장부지

·광산구 수원동 자연녹지 1,300

평 3년도로점 펼당 145만평, 1000평

부지 50평 대지 70평 단 30평

·광진구 대림동 110평 대지 10평, 100평

부지 50평 대지 50평 단 30평

·금호동 60평 대지 10평 단 5평

·도봉동 60평 대지 10평 단 5평

·성동구 대현동 대지 10평 단 5평